

# 수서비리는 현정권의 총체적 범죄입니다

3당 야합으로 이미 도덕성을 상실한 현정권은 최근 '수서지구 택지특혜 분양사건'으로 부패한 권력의 타락상을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5공비리보다 더욱 조직적이고 총체적인 범죄인 수서부정은 국가기관의 모든 권력층이 개입되어 있어 더욱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청와대 고위층이 직접 개입한 '6공화국 최대비리'인 '수서지구 택지특혜 분양'은 고위 당정회의의 메모록과 고의적으로 변조한 당정회의문서, 그리고 구속된 국회의원의 폭로와 양심선언등으로 정권의 비정직성과 정경유착이 극심함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고 현 정권이 부동산 비리를 저질러 집없는 서민들의 꿈을 잔인하게 짓밟고 있고, 민의를 대표하겠다고던 국회의원들은 검은 돈에 휩싸여 국민의 진정한 소리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이상 현정권에게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제 더이상 13대 국회에 희망을 품을 수는 없습니다.



## 민주정부가 필요합니다.

정말 단 한순간이라도 물가불안, 교통지옥, 범죄, 부동산 투기 등의 사회악에서 벗어나 편안하고 평등하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 국민 모두를 진정으로 생각하는 민주정부의 올바른 정책이 필요한 것입니다.

## 민주당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 첫째:** 물가상승의 주범인 정부의 무분별한 팽창예산, 방만한 통화관리를 통제해야 합니다.
- 둘째:** 토지 공개념 정책을 조기 실시해야 합니다. 대기업, 투기꾼들의 비업무용 토지는 토지소유제한법과 형평의 원칙에 입각한 증여세, 양도소득세, 누진세등으로 바로 잡아야 합니다.
- 셋째:** 사회정의를 바로잡고 민생치안에는 우수한 인력, 장비,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하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2원화해야 합니다.
- 넷째:** 전철과 도시 외곽순환도로를 건설해야 하며, 전동차를 현재의 2배로 확충하고, 대중교통 우선정책을 실시해야 합니다.

민주당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4-15 층무B/D 3F  
전화 : 785-0091~5 FAX : 782-9815

민주선전91-A-1



## 요즈음, 사는 것이 왜 그렇게 힘겹게 느껴질까요

- 날로 치솟는 물가는 시장 바구니를 든 마음만 무겁게 합니다.
- 정치는 국민들에게 혐오감을 줄 뿐 전혀 희망을 주지 못합니다.
- 자꾸 오르기만하는 집값은 내집 한번 장만하고자 하는 서민들에게 실망만을 줄 뿐입니다.
- 터져 버릴것만 같은 교통량은 도시인의 삶을 더욱 짜증나게 합니다.
- 한시도 마음놓을 수 없는 민생치안은 사회를 더욱 불안하게 합니다.
- 입시위주의 교육은 부모의 마음을 무겁게만 합니다.



45700

## 1. 물가상승의 피해자는 국민입니다.

**하** 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물가는 시장 바구니를 든 마음을 더욱 무겁게 합니다. 계속되는 인플레이로 소득은 올랐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전보다 못합니다. 그것은 바로 정부의 무분별한 팽창 예산, 방만한 통화관리, 투기로 인한 땅값 상승, 대기업의 가격조작 등에 따른 결과입니다.

정부의 예산은 해가 더할수록 증가하는데, 그것도 모자라 추가 예산이 보태어 집니다. 89년·91년 두해, 본 예산을 비교해보면 41.3%라는 엄청난 상승비율이 나타납니다. 거기다 원유값이 쌀때 비축

해 두었던 석유기금을 무분별하게 시중에 풀어 통화 팽창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유값이 오르게되자 석유기금을 언제 걷었느냐는 듯이 기름값을 30%나 올렸습니다.



주부들의 장바구니 속에도 물가시름이 가득.



땅값은 풍선처럼 부풀어오르고 예금 등 금융자산가치는 땅에 떨어진다.

## 2. 부동산 투기에 사회가 병들고 있습니다.

**지** 금 재벌과 일부 부유층의 부동산 투기 때문에 전 국토는 투기장화 되고 있습니다. 노태우 정권이 들어선 이후 88년에는 땅값이 27.5%가 올랐고 89년에는 32%가 올랐습니다. 이러한 상승에 편승해 전세·월세를 40~50% 올려, 무주택 서민들은 내집 마련의 꿈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땅값이 지나치게 오르는 이유는 재벌을 비롯한 부유층의 투기 수요가 극에 달하고 군사정권이 수서비리와 같은 범죄를 저질러 더욱 땅값을 폭등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 3. 사회범죄가 군사쿠테타를 닮아갑니다.

**지** 금 사회는 강도, 강간, 폭력이 난무하는 불안한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총·칼로 정권을 잡은 군사쿠테타정권 아래에서 이러한 현상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관료들의 부정부패로 정부는 썩어만가고, 많은 돈을 독차지한 재벌들의 배는 불러가지만, 한쪽에 소외되어진 계층의 불만은 쌓여만 갑니다. 부의 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사회에 범죄가 만연한 것은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정권유지에만 급급하여 시위현장에 경찰력을 집중 배치하는 사회의 민생 치안에 구멍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 4. 교통지옥은 극에 달했습니다.

**서** 울등 대도시의 교통상황은 이미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서울시의 하루 교통인구는 무려 2700만명으로 이들이 모두 도심을 통과해야 하는 출퇴근때는 그야말로 교통지옥을 방불케합니다.

이는 정부의 졸속한 도시계획과, 자동차 업체에게 특혜를 부여함으로써 생긴 문제입니다. 자동차 업체의 수출부진은 내수로 충족시켜야 했고, 정부는 이를 묵인·방조하면서 차등 중과세조차 실시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 5. 우리 자녀들에게 참교육이 필요합니다.

**지** 금 자녀들은 열악한 교육 환경속에서 시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교육여건이나 내용은 경제성장에 비하여 너무도 낙후되어 10년, 20년전이나 다름없습니다. 또한 역대 군사정권 아래서 진행되어진 '체제유지를 위한 교육'은 반공 적대 교육만을 시켜왔고, 통일을 위한 교육이나, 사회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교육보다는 체제순응적인 성향을 기르는 교육만 해왔습니다. 또 입시위주의 교육은 교육의 진정한 가치를 매몰시켜버리고 '입신출세'의 도구로 전락하여 사회전체를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  
역대군사정권은  
통일을 위한 교육이나  
사회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교육보다는  
체제 순응적인  
성향을 기르는  
교육만 해왔습니다.”



서러운 이사 :  
자고나면 '뭇백'씩 튀어오르는 전세금이 벅차서 더 썩곳을 찾아 이삿짐을 싸는 서민들(서울 잠실 시영APT)